"道 폐지보단 국가사무 道 이양해야"

"광양만권·무안반도 통합, 지역발전 이끌 것"

오늘 전남대서 '기초단체 자율통합' 토론회

도(道)를 폐지하기 보다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도에 이양해 광역적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광양만권과 무안반도 통합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 논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국거버넌스학회와 전남대 공공행정연구소는 16일 오후 3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의와 전남 동부권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하는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효율성의 가치가 과잉평가됐고 민주성의 가치는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성의 가치를 담보하는 현재의 광역-기초 2계층을 유지하고 광역단체의 광역적 조정기능을 강화해 광역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자치계층의 축소로 지방분권을 달성한다는 주장도 잘못됐다"며 "광역단체의 정부 견제기능이 사라져 오히려 분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정구역 획정 문제는 획일적이거나 단순 비교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합 방식과 유형을 제시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전남 동부권 통합에 대해 "순천-여수-광양은 생활공간이 상당부분 일일생활권으로 변화했다"며 "지역관리 체계도 그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통합이 이뤄지면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승주 목포대 교수는 '무안반도 통합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목포-무안-신안이 통합되면 전남 제1도시로서 도시경쟁력이 커지고 지명도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무안반도 통합 기대효과로 KTX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 정부지원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인건비·각종 축제 등 중복성 행사의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율성 선생 흉상 제막 15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휴먼시아 아파트 입구 정율성로(路)에 광주 출신 중국 혁명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흉상이 세워졌다. 남광주 청년회의소(JC)가 주최하고 광주시 남구가 후원한 이날 제막식에는 황일봉 남구청장과 옌펑란 주(駐) 광주 중국총영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나명주기자 mjna@

경제효과 9천5백억, 고용유발 1만5천명

■광주 김치연구소 유치 효과는

김치산업의 대표적 R&D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김치연구소 유치로 인해 광주·전남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식품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발효식품 김치를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하고, 김치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해 지역 내 김치산업의 부흥을 이끌 수 있으며, 음식과 관련된 각종 이벤트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전남대에 의뢰한 '광주·전남 김치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 구상' 용역에서는 세계김치연구소 유치를 통해 시는 생산유발효과 4천66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천849억원 등 모두 약 9천500여 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5천577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 것도 연구소와 연계가 가능한 광주·전남지역에 김치산업 기반시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는 매년 500억원의 예산을 김치관련 사업에 투자해 경쟁력을 높여왔으며, 김치라는 하나의 식품을 주제로 한 김치종합센터를 광주시 남구 임암동 7만9천932㎡ 부지에 326억 원을 투입,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설립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광주시 공동 브랜드인 '감칠배기' 생산에 참여한 7개 업체가 연간 1만5000t의 김치를 생산하는 김치 HACCP(Hazar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가공공장, 박물관, 연구소, 체험장, 판매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김치문화축제를 16차례 치러오면서 노하우가 쌓였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활용한 김치 체험관광 등 부가효과도 높은 것은 물론 전남지역에서 김치 원·부재료인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천일염 등을 쉽게 수급할 수 있어 광주와 전남의 음식 산업과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이란 여객기 추락 탑승객 168명 사망

이란 북서부에서 여객기가 추락, 탑승객 168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15일 보도했다.

이란 카스피안항공 소속 F7908 여객기는 이날 오전 11시 49분께(한국시간 오후 5시19분) 테헤란 북서쪽 140km 지점인 카즈빈 지역 인근 농지에 추락했다고 항공사가 밝혔다.

이 여객기는 이날 오전 승객 153명과 승무원 15명을 태우고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공항을 떠나 아르메니아의 예레반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나 이륙 16분만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남미권 '신종플루' 사망·감염자 확산

남미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바이러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현재 아르헨티나는 137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돼 미국(211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국가가 됐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다음으로는 멕시코가 124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후안 만수르 아르헨티나 보건장관이 "감염자 수가 10만명 선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날까지 감염자는 3천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시 신임 국장급 프로필

김동율 문화체육정책실장 업무 추진력이 탁월한 간부로 평가받고 있다.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을 이끌어 선후배 공무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보성(57) ▲순천농림고등전문학교 ▲행정자치부 인사계장 ▲서구 부구청장 ▲종합건설본부장 ▲정책기획관

정선수 정책기획관 경제통상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통으로 꼽힌다. 대범한 업무 스타일로 직원들의 신망이 높다. ▲광주(55) ▲살레시오고 ▲호남대 행정대학원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계장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장 ▲투자유치기획단장

이호준 공무원교육원장 차분하고 섬세한 스타일이며, 업무 분석력이 뛰어나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이끌었다. ▲보성(50)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협력실장 ▲북구 부구청장 ▲문화체육정책실장

홍기남 남구 부구청장 참신한 기획으로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척하는 진취형 공직자로 알려져 있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으로 재직하는 등 지방행정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함평(56) ▲전남기계공고 ▲조선대대학원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팀장 ▲공무원교육원장

이홍의 북구 부구청장 호방하고도 따뜻한 성품에 업무 추진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선이 굵고 과단성 있는 업무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광주 (57) ▲광주고 ▲전남대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장 ▲서구 사회산업국장 ▲세정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영어 공교육 강화·무상급식 지원 확대·대안학교 설립 등

전남 농어촌 교육여건 크게 개선된다

전남도 61개 세부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남지역 농어촌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15일,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농어촌교육여건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61개 세부사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사업에는 영어 공교육 강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확대 등이 포함돼 낙후된 이 지역 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된 세부단위 사업 추진계획은 크게 ▲교육기반시설 구축 ▲초·중·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교육여건 마련 ▲진로 직업교육 지원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제도개선 건의 등 6대 정책과제로 나뉘며 여기에는 94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책과제별로는 녹색친환경 기숙사 건립, 농어촌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학력향상 프로그램 공모, 기숙형공립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과학인재 캠프, 글로벌 리더 학생 어학연수, 원어민 원격화상 콜센터 운영, 전문계고 학생 해외인턴십 운영 등이 추진된다.

또 한옥건축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농수산특성화 전문계고 특성화 지원, 셋째 자녀 이상 학교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모국문화교실 운영, 농어촌학교 향토교사 채용 건의, 농어촌학교 학교급식 지원단가 현실화, 공립대안학교 설립 등도 61개 세부사업에 포함됐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세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대정부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요청하고, 22개 시·군과 지역교육청 등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김장환 도교육감,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조응호 한국외국어평가원 이사장,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교육 활성화와 인재육성,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과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